

#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6권 3호(2013년 9월)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 목 차

---

-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송수정 · 남은영
-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장휘순 · 이승연
- 정서인지기능과 억제기능, 일반지능, 사회기능이 탈화제 발언(脫話題 發言; off-topic speech)에 미치는 효과 김영경 · 진영선
- 어머니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신주혜 · 정윤경
-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정진나
- 마음이해와 공감의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권주현 · 박영신
- 

한국발달심리학회

# 한국심리학회지

## 제26권 3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 ..... 송수정 · 남은영	1
아동의 신체적 학대 경험과 반응적 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의도적 통제와 사회정보처리의 매개효과 ..... 장휘순 · 이승연	19
정서인지기능과 억제기능, 일반기능, 사회기능이 탈화제 발언(脫話題 發言; off-topic speech)에 미치는 효과 ..... 김영경 · 진영선	47
어머니의 정서발달 관련 신념에 따른 정서표현성 및 자녀의 부정정서 표현에 대한 반응 ..... 신주혜 · 정윤경	71
일차순위와 이차순위 마음상태에 대한 아동의 이해: 발달적 격차를 중심으로 ..... 정진나	97
마음이해와 공감의 독재자 게임에 나타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 권주현 · 박영신	117



#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검증<sup>1)</sup>

송수정    남은영<sup>2)</sup>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아동심리전공

본 연구에서는 전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3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각각 정서적 경험에 대해 묻는 반 구조화 된 인터뷰를 실시하여 상위정서철학을 평정하였으며, 해당 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의 하위차원 중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둘째,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셋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의 하위차원 중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점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사회적 유능성, 부모-자녀 정서관계

정서에 대한 신념이나 태도 및 가치관을 의미하는 ‘상위정서철학’은 1996년 Gottman, Katz와 Hooven에 의해 소개된 개념으로 부정적 정서인 슬픔과 분노에 대한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상위정서철학이란 정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

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정서에 대한 상위-인지적 개념으로(Gottman et al., 1996), 정서적 행동에 대한 실행기능적 측면이라 볼 수 있다.

상위정서철학 구조의 핵심원리는 부모 자신이

1) 본 논문은 2013년도 서울여자대학교 특별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2013년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수정·보완한 내용임.

2) 교신저자: 남은영, 서울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E-mail: nahmey@swu.ac.kr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반응패턴이 달라지며 이는 곧 자녀의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atz, Maliken, & Stettler, 2012). 즉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자녀와의 정서적 관계 및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에서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Hessler, 2008; Hunter, Katz, Shortt, Davis, Leve, Allen, Sheeber, 2011). 이들 연구에서 부모가 자신의 정서 및 자녀의 정서에 대해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상위정서철학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Gottman et al., 1996; Katz & Hunter, 2007; Shortt, Stoolmiller, Smith-Shine, Eddy, & Sheeber, 2010).

Gottman과 동료들(1996)에 의하면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또래관계와 신체적 건강, 그리고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Katz와 Hunter(2007)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우울을 포함한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코칭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덜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Shortt et al., 2010).

부모의 상위정서철학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인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것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Hunter et al., 2011).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는 어머니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에게 모델로서의 기능과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로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는 자녀가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어

머니의 가르침과 수용적인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

위 두 가지 차원은 자녀의 사회·정서발달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정서에 대해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부모의 자녀들보다 정서조절 능력이 높으며(Ramsden & Hubbard, 2002), 아동의 정서에 대해 무시하거나 처벌적으로 반응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자신의 감정이 옳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느끼게 되어 정서조절능력이 낮다고 밝혀졌다(Eisenberg, Fabes, & Murphy, 1996),

이러한 부모의 정서적 행동은 정서 표현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해 얼마나 수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Hunter et al., 2011).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에 대해 수용적인 신념을 가진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더 지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윤경, 박혜진, 2012; Wong, McElwain, & Halberstadt, 2009). 즉 자녀의 정서적 경험에 대한 부모의 반응뿐만 아니라 부모가 가진 정서에 대한 신념 및 태도는 자녀의 정서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연구는 Nahm(2006)이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시작으로, 감정코치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성을 밝히고자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의 변화를 측정한 연구(남은영, 2013),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윤혜린, 2013), 부모의 상위정서 양육태도와 정서표현 갈등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이서리, 남은영, 2012) 및 행동문제(배지우, 2010)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국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연구는 그 수가 적는데,

이는 인터뷰법을 사용하여 상위정서철학을 측정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세밀한 평정을 위한 장시간의 전문적 분석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Nahm(2006)에 의해 한국 부모와 서양 문화권 부모와의 상위정서철학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져, 서양 문화권의 연구결과로 우리나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에 대해 유추해보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추상적인 사고기능이 가능해지고 생각을 조직화할 수 있는 상위인지능력이 발달하면서 정서를 다루는 전략을 개발하고 정서를 수용 및 표현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시기이다(Hunter et al., 2011). 이 때 대부분의 아동은 발달적으로 정서에 대한 정교한 지식체계가 잡히는 시기(Berk, 2009), 부모가 가진 정서 신념이나 정서적 반응을 통해 인지, 행동적으로 정서에 대한 생각이나 가치관이 자리잡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아동인 초등학교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주 양육자인 어머니가 자신 및 자녀의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동이 가진 정서적 신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해 탐색해보려 한다.

정서인식 및 이해, 정서표현에 대한 편안함, 정서조절 및 정서회복과 같은 전반적인 정서적 행동을 평정함으로써 예측되는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은, 정서에 대해 수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평소에 정서를 경험하는 상황에 대해 잘 이해하고 표현 및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회복하는 데 능숙할 것임이 가정된다(Hessler, 2008; Katz & Windecker-Nelson, 2004). 이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측정과 마찬가지로 반 구조화된 정서 관련 인터뷰를 통해 측정되는데,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정서적 신념이나 태도가 아직 완전히 공고화되지 않아 보다 더 실행적인 정서 관련 행동들을 통해 예측하고 있다. 아동의 정서 관련 행동들은 그들이 정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신념에 영향을 받아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아동의 정서발달에 더 깊은 이해를 도울 것이라 생각된다.

위에서 개관한 바와 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될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 이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과도 연관이 되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가령 자녀의 정서에 대해 수용적이고 적절히 지도해주는 어머니를 둔 아동은 회복력이 높아져 정서적 안정을 쉽게 찾으려(존 가트맨, 남은영, 2007)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또래관계와 친사회적 행동 및 사회적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지연, 남은영, 2011; Eisenberg & Fabes, 1992; Eisenberg et al., 1996; Roberts & Strayer, 1996). 반면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부적절한 반응은 자녀로 하여금 감정을 억압하게 하고 조절하는 방법을 습득할 기회를 잃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혀졌다(Denham, 1993; Eisenberg et al., 1996; Jones, Eisenberg, Fabes, & MacKinnon, 2002).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서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해내며 자기주장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위축

되거나 공격적인 비사회적 행동을 덜 보인다. 아동의 정서 관련 변인과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서적 능력이 부족하면 낮은 사회적 기능으로 이어져 공격성, 범죄, 자살, 우울 등 여러 가지 행동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나타났다(고인숙, 2005; 신현숙, 2006; 전은정, 2009; 한민경, 2003; Garner & Estep, 2001; Parker & Asher, 1987; Schutte, Malouff, Bobik, Coston, Greeson, Jedlicka, Rhodes, & Wendorf, 2001). 그러나 위와 같이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아동의 정서와 관련된 단일차원의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보다 상위개념적 접근으로 아동이 가진 정서적 신념 및 태도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적응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문제들을 예방하고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심리적 중재 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요약하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은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 의해 영향을 받아 형성되고 더 나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요인과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정서조절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그 역할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 2007; 김지연, 남은영, 2011; 이승은, 남은영, 2011, Gottman et al., 1996),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바탕으로 Katz 등(2012)도 정서조절능력에서 확장하여 아동

의 전반적 정서행동과 관련되는 상위정서철학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제안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역할에 대해 밝힘으로 전 청소년기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2.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4.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가?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5개의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3명과 그들의 어머니 4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 20명(46.5%), 여아 23명(53.5%)이었다. 학년별은 5학년은 30명(69.7%), 6학년은 13명(30.2%)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5~40세가 13명(30.2%), 41~45세가 27명(62.8%), 46~50세가 2명(4.7%), 51~55세가 1명(2.3%)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1.9세(SD=3.32)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11명(25.6%), 전문대 졸업 및 대학교 중퇴가 13명

(30.2%), 대학교 졸업이 17명(39.5%), 대학원 졸업이 2명(4.7%)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은 무직, 가정주부가 20명(46.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전문직 8명(18.6%), 기타 6명(14.0%), 일반사무직 5명(11.6%), 판매 서비스직 2명(4.7%), 자영업과 기능 숙련공 각각 1명씩(2.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측정도구

####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을 측정하기 위해 Katz와 Gottman(1986)이 개발한 부모의 상위정서 인터뷰(PMEI: Parent Meta-Emotion Interview)를 Nahm(2006)이 영어와 한국어의 뉘앙스 차이로 인한 번안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언어가 가능한 연구보조자 집단을 활용해 여러 차례 검증을 실시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상위정서인터뷰는 부모에게 슬픔 및 분노 정서에 대한 경험, 생각, 느낌에 대해 질문하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이다. 인터뷰 내용에는 어머니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슬픔과 분노)에 대한 질문들과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슬픔과 분노)에 대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 가족과의 정서적 관계에 대한 질문들로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 가족과의 인터뷰 내용을 제외하고 실시하였으며, 일반적으로 30~4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피면접자의 동의 하에 인터뷰 전 내용을 녹음하여 추후에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Katz, Mittman과 Hooven(1994)이 개발한 상위정서 코딩시스템(Meta-Emotion Coding System)을 Nahm(2006)이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사용하여 본 연구자가 평정하였다. 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월 이

상 부모의 상위정서 코딩시스템 사용에 대해 훈련을 받은 아동심리전공 연구자와 전체 데이터의 25.5%를 교차분석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ICC)를 산출하였다. 본 코딩시스템에는 두 가지의 하위차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터뷰 내용에 따라 어머니 본인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태도와 자녀가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태도를 각각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Maternal Self-directed Meta-Emotion Philosophy)

: 어머니에게 자신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분노 정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반 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질문하였다.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시작 시 인터뷰의 목적에 대해 설명 후 어머니에게 슬픔 및 분노 경험에 대해 각각 질문하였다. 예를 들어, “화가 나셨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최근에 어머니께서 경험하신 슬픔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등이 질문 문항에 포함된다. 본 차원에는 정서인식, 정서수용, 정서조절의 조직된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매우일치’, ‘일치’, ‘보통’, ‘불일치’, ‘매우불일치’, ‘알 수 없음’의 6점 척도로 코딩된다.

‘어머니의 정서인식’은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감정을 경험하는가’ ‘다른 감정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등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정서수용’은 1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감정을 수용하는가’ ‘감정을 표현하는데 편안함을 느끼는가’ 등을 포함한다. ‘어머니의 정서조절’은 1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 감정의 격렬함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가’

‘감정이 자주 발생되는가’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 세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하여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점수를 산출하였다.

아울러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하고자 슬픔에 대한 점수와 분노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최종 상위정서철학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목적에 따라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전반적 태도를 살펴보기 위함이었으며, 선행연구를 통하여 정서별 사회화 행동보다는 부모의 전반적인 정서사회화 행동이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더 잘 예측한다고 밝혀진 것(O’Neal & Magai, 2005)을 바탕으로 하였고 더불어 작은 표본으로 인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위요인의 수를 제한하고자함이었다. 슬픔과 분노에 대한 점수 상관( $r=.35, p<.05$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각 항목별 내적합치도는 .77에서 .80으로 나타났으며, 평정자간 일치도(ICC)는 .73에서 .88로 나타났다.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변인의 총 내적합치도는 .81이었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Maternal Child-directed Meta-Emotion Philosophy) :** 어머니에게 자녀가 경험하는 슬픔 및 분노 감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슬픔을 경험할 때 어머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드세요?”, “자녀가 분노나 화를 경험할 때 어머니께서 어떻게 반응해주시나요?” 등이 질문 문항에 포함되었다. 하위요인으로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서수용, 정서코칭, 정서조절의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정서조절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크게 예측하지 못한 변인이었으며(Nahm, 2006), 본 연구에서도 문항 내적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세 가지 차원만을 살펴보았다.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매우일치’, ‘일치’, ‘보통’, ‘불일치’, ‘매우 불일치’, ‘알 수 없음’의 6점 척도로 코딩된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은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녀가 해당 감정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녀가 경험하는 해당 감정을 다른 감정과 구별할 수 있는가’ 등을 포함한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수용’은 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녀의 감정 표현에 대해 부모가 얼마나 편안하게 느끼는가’, ‘자녀의 감정에 대해 부모가 공감하는가’ 등을 포함한다. ‘정서코칭’은 11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녀가 해당 감정을 느낄 때 자녀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자녀에게 적합한 표현에 대한 규칙을 가르치는가’ 등을 포함한다. 위 세 하위요인의 점수를 합하여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점수를 산출하였다.

슬픔 및 분노에 대한 점수를 합하여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최종 상위정서철학 점수를 산출하였다. 슬픔과 분노에 대한 점수 상관( $r=.52,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며, 각 항목별 내적합치도는 .59에서 .81으로 나타났으며, 평정자간 일치도(ICC)는 .77에서 .91로 나타났다.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변인의 총 내적합치도는 .84로 산출되었다.

####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Katz와 Gottman(1986)이 개발한 부모의 상위정서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상위정서

철학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Katz와 Windecker-Nelson(2002)의 아동 및 청소년의 상위 정서 인터뷰(CMEI: Child and Adolescent Meta-Emotion Interview)를 사용하였다. 이는 Nahm(2006)이 번안한 부모의 상위정서인터뷰를 기초로 하여 한국어로 번안한 후 아동심리학 전문가 2인의 검토를 거쳐 사용하였다. 또한 예비연구를 통해 본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5인에게 문항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 이해가 어려운 문항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완하였으며, 현 초등학교 교사 3인에게 문항들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본 인터뷰는 부모의 상위정서인터뷰 내용과 유사하며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정되어 개발된 것으로, 아동의 슬픔 및 분노 감정에 대한 경험, 생각, 느낌에 대해 질문하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 방식이다. 문항 예시로는, “네가 화가 날 때 어떻게 보이니?”, “네가 슬픔을 경험한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줄래?” 등이 포함되며,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20~30분이 소요되었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Katz와 Windecker-Nelson(2004)이 개발한 아동 및 청소년 상위정서 코딩시스템(CAME: Child and Adolescent Meta-Emotion Coding System)을 이용해 평정하였다. 이는 부모의 상위정서 코딩시스템(Katz et al., 1994)을 기초로 하여 개발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Nahm(2006)이 번안한 부모의 상위정서 코딩시스템을 바탕으로 번안하였다. 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월 이상 부모의 상위정서 코딩시스템 사용에 대해 훈련을 받은 아동심리전공 연구자와 전체 데이터의 25.5%를 교차분석하여 평정자 간 신뢰도(ICC)를 산출하였다. 본 코딩시스템은 정서인식 및 이해, 정서표현에 대한

편안함, 정서조절, 정서회복 총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체크리스트 항목들은 ‘매우일치’, ‘일치’, ‘보통’, ‘불일치’, ‘매우불일치’, ‘알 수 없음’의 6점 척도로 구성된다.

‘정서인식 및 이해’는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른 정서와 구분할 수 있는가’ ‘정서에 대한 경험을 기술할 수 있는가’ 등을 포함한다. ‘정서표현에 대한 편안함’은 4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정서를 나누는가’ 등을 포함한다. ‘정서조절’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서의 격렬함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가’ 등을 포함한다. ‘정서회복’은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움이 되는 회복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회복 기술은 수용 vs 회피를 제시한다’ 등을 포함한다.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점수는 위 네 가지 하위차원의 점수를 합하여 산출되며, 슬픔 및 분노에 대한 각각의 점수를 합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최종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점수를 산출하였다. 슬픔과 분노에 대한 점수 상관( $r=.65, p<.01$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점수를 합산하여 분석하는 데 문제가 없었으며, 각 하위요인 별 문항 간 내적합치도는 .70에서 .83으로 나타났으며, 평정자 간 일치도(ICC)는 .82에서 .96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변인의 총 내적합치도는 .85로 산출되었다.

###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Hightower과 동료들(1986)이 개발한 ‘교사용-아동 평정척도(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T-CRS)’를 정현희(2002)가 한국판 척도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정현희(2002)에 의해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아동 1,146명을 대상으로 타당화가 이루어진 척도이다. 이 척도는 총 38문항으로, 유능성 영역과 문제행동 영역으

로 나누어지며 5점 척도로 되어있다. 유능성 영역의 점수는 높을수록, 문제행동 영역의 점수는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임을 의미한다.

유능성 영역은 좌절인내(5문항), 자기주장적 사회기술(5문항), 과제지향(5문항), 또래관계 기술(5문항) 네 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절인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나 실패 상황에서 잘 견뎌내어 주어진 제한이나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주장적 사회기술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리더십이 있고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제지향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완수하며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능감 영역의 마지막 요인인 또래관계 기술은 친구를 잘 사귀고 급우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친구에게 친절할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 영역은 외현화 행동(6문항), 수줍음-불안(6문항), 학습문제(6문항)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현화 행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며 다른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방해하며 또래들에게 공격적이고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수줍음-불안은 수줍어하며 불안하며 위축되어 있고 긴장하고 침울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행동 영역의 마지막 요인인 학습문제는 능력에 비해 성적이 낮고 학습 습관이 나쁘며 성취에 대한 동기가 낮고 교과목의 내용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위요인 별 문항 내적합치도는 .88에서 .9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능성 영역의 총점과 문제행동 영역의 총점 간 상관관계가 높아( $r = -.92, p < .001$ ) 문제행동 영역의 문항을 역코딩하여 두 영역점수를 합해 사회적 유능성 총점 점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연구절차

먼저 연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2년 9월부터 11월까지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연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가정으로 배부하여 신청자를 받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어머니 인터뷰는 본 연구자가 해당 가정으로 방문하여 실시하거나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아동 인터뷰는 방과 후 또는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빈 교실에서 실시하거나 본 연구자가 해당 가정으로 방문하여 실시하였다. 어머니와 아동의 동의하에 인터뷰 전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녹음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 및 훈련을 받은 아동심리전공 연구자와 함께 분석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설문지는 해당 아동의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2012년 9월부터 11월 중에 평정하여 본 연구자가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먼저 PASW Statistics 18.0을 사용하여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시 어머니와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여, 본래 남아와 여아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작은 표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후 검증하였다.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AMOS 17.0을 통해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산출하고 매개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MacKinnon,

표 1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간의 상관관계 (n=43)

통제변수		1		2	3
		1-1	1-2		
아동의 성별	1.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1-1.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 한 상위정서철학	-		
		1-2.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상위정서철학	.26	-	
	2.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39*	.27	-
	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18	.08	.36*

\* $p < .05$

표 2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미치는 영향력 (n=43)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2$	$F$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40	2.77	.16	7.67**

\*\* $p < .01$  \* $p < .05$

Lockwood, Hoffman, West와 Sheets(2002)의 two-step 접근에 따르면 (1)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2) 매개변인과 독립변인을 동시에 독립변인으로 넣고 회귀분석을 하였을 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면 매개검증이 가능하다(박지은, 설경옥, 2013; Katz et al., 2007). 이를 바탕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하였으며, 최종모형의 매개효과가 갖는 유의확률을 검증하고자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간의 상관관계

아동의 성별을 통제한 후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상위정서철학과

정적 상관( $r = .39, p < .05$ )이 나타난 반면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상위정서철학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r = .27, ns$ ). 둘째, 아동의 상위정서철학과 사회적 유능성 간의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 $r = .36, p < .05$ )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r = .18, ns$ )’과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 $r = .08, ns$ )’ 모두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변인들은 다음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미치는 영향

위 상관분석 결과에 따라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의 두 하위차원 중 아동의 상위정서철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난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표 3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 (n=43)

종속변인	독립변인	$\beta$	t	R <sup>2</sup>	F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37	2.54	.14	6.47*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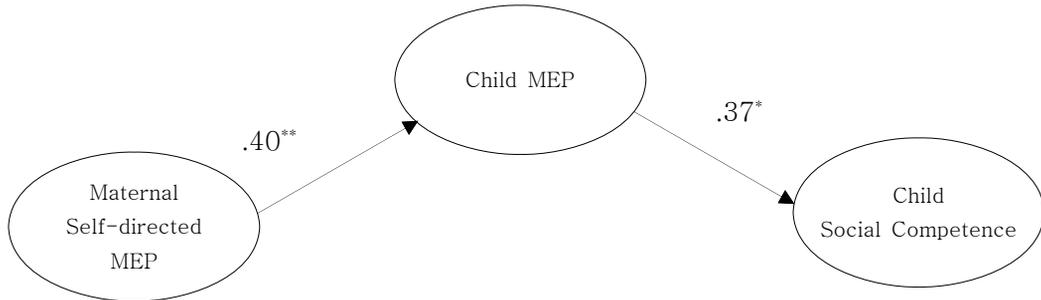


그림 1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구조모형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 와 같다.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6%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 41)=7.67, p<.01),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77, p<.05).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 과 같다.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의 설명력은 14%이고, 회귀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 41)=6.47, p<.05),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2.54, p<.05).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매개효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X<sup>2</sup>는 .190, 절대 적합지수인 Q는 .190, GFI는 .997, AGFI는 .982, 증분적합지수인 NFI는 .986로 나타났다. CFI는 1.00, RMSEA는 .000(0.00~.359)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판단 수치에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다.

구조모형을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에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미치는 직접 경로 계수는 .40,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서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경로계수는 .37로 각각 .01, .05수준에서 유의하였다(그림 1). Bootstrapping을 이용해 본 모형의 최종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간접효과는 .15로 .10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의 두 하위차원 중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점수도 높았다. 이는 어머니 스스로가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잘 인식 및 조절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으면 그 자녀 또한 자신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고 표현 및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적으며 잘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정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해야할지를 결정할 때 부모를 길잡이로 사용한다는 의견(Morris, Silk, Steinberg, Myers, & Robinson, 2007)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가 가진 정서에 대한 철학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적 경험을 다루는 태도들을 통해 그 자녀가 갖게 되는 정서에 대한 철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결과 흥미롭게도 어머니 상위정서철학의 두 번째 하위차원인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은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어머니가 그것을 얼마나 잘 인식 및 코칭하고 수용적인 태도로 반응해주는지와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간에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상위정서철학에 관한 선행문헌 결과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유추해보자면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 상위정

서철학의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영유아에서 아동 초기(5~8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정서를 얼마나 잘 인식해주고 적절하게 코칭해주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으며(Gottman, Katz, & Hooven, 1997), 이보다 성장한 중기 청소년기(12~14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코칭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머니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고 밝혀졌다(Katz & Hunter, 2007). 이는 12~13세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데 이를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12~13세 전청소년기 아동은 인지능력이 발달하여 어린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신념에 관해 더 잘 지각하고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령 자녀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때 어머니가 수용해주며 적절한 코칭을 해주지만 정작 어머니 본인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용적이지 않은 태도를 갖고 있다면 이 시기의 아동은 어린 연령의 아동에 비해 비교적 쉽게 알아차려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즉 아동이 정서적 신념을 형성하는 데 어머니를 모델링하여 어머니 스스로가 평소에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가진 가치관이나 태도를 통해 비언어적인 학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직접적인 반응보다는 평소에 어머니 스스로가 그 정서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가 이 시기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에 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러나 13~15세를 대상으로 한 노지영과 정윤경(2010)의 연구에서는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자녀가 갖는 정서적 신념 간의 직접적인 관

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 이보다 더 성장한 후기 청소년기(14~18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정서코칭이 자녀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혀졌으므로 (Hunter et al., 2011; Stocker, Richmond, & Rhoades, 2007) 위와 같은 해석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종단연구를 통하여 자녀의 연령에 따른 정서사회화 과정에 대해 정확한 경로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논의할 결과는,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사회적 유능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는 것이다. 즉 아동 자신이 정서적 경험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고 세부적이고 조직화된 철학을 가지고 있을수록 학교 장면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더 정교해지고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에 순응하면서 학업적 성취를 통해 인지적 과업을 획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자신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정서를 표현 및 조절하는 데 능숙할 뿐만 아니라 쉽게 회복하여 사회적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졌지만(김연지, 정종진, 2005; 김호정, 2001; 전정미, 유미숙, 2006; 이하나, 2006; Schutte et al., 2001) 정서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관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아동 상위정서철학의 영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으로 논의할 결과는,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어머니 자신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평소에 경험하는 정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수용하며 조절하는지에 따라 아동이 가지게 되는 정서에 대한 철학이 달라질 수 있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학교장면에서의 사회적 유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주목해 볼 만하다. 이는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이 매우 의미있는 요인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Katz 등(2012)이 상위정서철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여 제안한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의 매개모형을 뒷받침하며, 전청소년기 아동의 경우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직접적인 정서코칭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정서적 특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Katz & Hunter, 2007) 이는 곧 또래관계를 비롯하여 심리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작용(김지연, 남은영, 2011; 이승은, 남은영, 2011; Eisenberg, Gershoff, Fabes, Shepard, Cumberland, Losoya, Guthrie, & Murphy, 2001; Gottman et al., 1996)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뒷받침해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몇 가지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어머니와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을 인터뷰법을 통해 측정하는 방법론적인 특성으로 인해 표본을 충분히 크게 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그로 인해 인구학적 변인이 균등하게 표집되지 못하여 교사 및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관계의

차이에 대해 검증하지 못하였다. 이를 보완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본 연구에서 검증한 구조모형은 통계적으로 미미한 수준에서 유의함이 나타났다. 표집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표본을 보다 더 크게 하여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행동과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간의 보다 더 정확하고 세분화된 관계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발달에 미치는 어머니의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최근에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상위정서철학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을 독립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임이 밝혀지면서(Hunter et al., 2011) 아버지 변인을 함께 포함시켜서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부부관계와 아버지의 양육 참여 또한 아동의 정서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김지윤, 도현심, 김민정, 2008; 박익새, 2012; Gottman & Katz, 1989). 즉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정서 관련 태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행동, 부부관계, 아버지의 양육참여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을 탐색할 때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분위기를 예측하는 다양한 요인이 함께 연구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사회화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이 결과를 우리 사회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추후에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으로 연구결과가 검증되어야 하며 대표성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정서에 대한 어머

니의 상위정서철학’의 하위차원인 정서조절 변인이 신뢰도가 다소 낮게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해당 척도의 문항수가 적고 상위정서인터뷰의 내용이 자녀의 정서조절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들이 아니어서 응답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정서조절 변인을 세밀하게 평정할 수 있도록 인터뷰 질문 내용을 추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와 같은 보완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청소년기 아동의 정서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어머니의 영향력에 대해 제시하고, 더 나아가 어머니 본인의 정서에 대한 상위정서철학과 아동의 상위정서철학 및 사회적 유능성 간 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 연구결과는 어머니와 전청소년기 아동의 상위정서철학을 다루는 심리중재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인숙(2005). 아동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과의 상관.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연지, 정종진(2005). 정서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26(2), 99-121.
-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박보경(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김지연, 남은영(201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2(5), 12-28.

- 김지윤, 도현심, 김민정(2008). 부부갈등과 유아의 기질 및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9(5), 133-150.
- 김호정(2001). 어머니의 정서 표현성과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은영(2013). [저소득 가정을 위한 감정코치 부모 교육 프로그램 효과연구]. 미발행 연구.
- 노지영, 정윤경(2010). 자녀의 부정적 정서표현에 대한 어머니 반응에 따른 아동의 정서표현양상과 정서표현신념.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3(2), 57-71.
- 박익새(2012). 부부공동양육, 아버지 양육참여 및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지우(2010). 부모상위정서와 양육태도 및 아동 행동문제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은, 설경옥(2013). 후기 아동기의 종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친사회성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51-66.
- 신현숙(2006).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혜린(2013). 어머니의 상위정서철학과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과의 관계: 어머니와 교사 지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서리, 남은영(2012). 부모 상위정서 양육방식, 아동의 정서표현 갈등 및 사회적 기술 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지**, 4(2), 35-50.
- 이승은, 남은영(2011). 부모의 공감, 아동의 또래 관계 및 아동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 **한국심리치료학회**, 3(1), 41-56.
- 이하나(2006).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의 표현 및 갈등과 대인불안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은정(2009). 아동의 공감능력 및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정미, 유미숙(2006).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정서지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3), 225-240.
- 정윤경, 박혜진(2012). 한국 부모의 정서발달에 대한 신념과 이에 따른 정서 관련 양육 행동.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5(2), 107-128.
- 정현희(2002). 한국판 교사용-아동평정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2), 73-88.
- 존 가트맨, 남은영(2007).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 감정코치. 서울: 한국경제신문.
- 한민경(2003).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 양육행동 및 아동의 정서 이해 능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k, L. E. (2009). *Child development 8th edition*.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Illinois State University.
- Denham, S. A.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5), 715-728.
- Eisenberg, N., & Fabes, R. A. (1992). Emotion, regulation,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competence.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Emotion and social behavior* (pp. 119-150). Newbury Park, CA: Sage.

- Eisenberg, N., Fabes, R. A.,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Eisenberg, N., Gershoff, E. T., Fabes, R. A., Shepard, S. A., Cumberland, A. J., Losoya, S. H., Guthrie, J. K., & Murphy, B. C. (2001). Mother's emotional expressivit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social competence: Mediation through children's regul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7*, 475-490.
- Garner, P. W., & Estep, K. M. (2001). Emotional competence, emotion socialization, and young children's peer-related social competence. *Early Education & Development, 12*(1), 29-48.
- Gottman, J. M., Katz, L. 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6).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the emotional life of families: Theoretical models and preliminary data.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3), 243-268.
- Gottman, J. M., Katz, L. F., & Hooven, C. (1997). *Meta-emotion: How families communicate emotionall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Hessler, D. M. (2008). *Family stressors, emotional competence, and adolescent risky behavior*. University of Washington. Doctoral dissertation.
- Hightower, A. D., Work, W. C., Cowen, E. L., Lotczewski, B. S., Spinell, A. P., Guare, J. C., & Rohrbeck, C. A. (1986).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A brief objective measure of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5*(3), 339-409.
- Hunter, E. C., Katz, L. F., Shortt, J. W., Davis, B., Leve, C., Allen, N. B., & Sheeber, L. B. (2011). How do I feel about feeling? Emotion socialization in families of depressed and healthy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4), 428-441.
- Jones, S., Eisenberg, N., Fabes, R. A., & MacKinnon, D. P. (2002). Parents' reactions to elementary school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social and emotional functioning at school. *Merrill-Palmer Quarterly, 48*(2), 133-159.
- Katz, L. F., & Gottman, J. M. (1986). *The meta-emotion interview.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attle, WA.
- Katz, L. F., & Hunter, E. C. (2007).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adolescent depressive symptomatology. *Social Development, 16*(2), 343-360.
- Katz, L. F., Maliken, A. C., & Stettler, N. M. (2012).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 review of research and theoretic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 Perspectives*, 0(0), 1-6.
- Katz, L. F., Mittman, A. & Hooven, C. (1994). *The meta-emotion coding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 Katz, L. F., & Windecker-Nelson, B. (2002). *The child/adolescent meta-emotion interview*.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Washington, Department of Psychology, Seattle, WA.
- Katz, L. F., & Windecker-Nelson, B. (2004). *The child/adolescent meta-emotion coding system*.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 Morris, A. S., Silk, J. S., Steinberg, L., Myers, S. S., & Robinson, L. R. (2007). The role of the family context in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Social Development*, 16, 361-388.
- Nahm, E. Y. (2006).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Kore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parent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its relationship to parent-child inter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Doctoral dissertation.
- O'Neal, C. R., & Magai, C. (2005). Do parents respond in different ways when children feel different emotions? The emotional context of paren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7(2), 467-487.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Ramsden, S. R., & Hubbard, J. A. (2002). Family expressiveness and parental emotion coaching: Their role i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6), 657-667.
- Roberts, W., & Strayer, J. (1996). Empathy,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2), 449-470.
- Schutte, N. S., Malouff, J. M., Bobik, C. Coston, T. D., Greeson, C., Jedlicka, C., Rhodes, E., & Wendorf, G. (2001).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relations.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4), 523-536.
- Shortt, J. W., Stoolmiller, M., Smith-Shine, J. N., Eddy, J. M., & Sheeber, L. (2010). Maternal emotion coaching, adolescent anger regulation, and siblings' externalizing symptom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1(7), 799-808.
- Stocker, C. M., Richmond, M. K., & Rhoades, G. K. (2007). Family emotional processes and adolescents' adjustment. *Social Development*, 16(2), 310-325.
- Wong, M. S., McElwain, N. L., & Halberstadt, A. G. (2009). Parent, family, and child characteristics: Associations with mother- and father-reported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4), 452-463.

---

1차 원고 접수: 2013. 07. 12.

수정 원고 접수: 2013. 09. 01.

최종 게재 결정: 2013. 09. 08.

# Relations between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Meta-Emotion Philosophy

Soo-Jung Song

Eun-Young Nahm

Department of Child Studies, Seoul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children's meta-emotion philosophy and social competence among preadolescent elementary school(grades 5-6) children and their mothers. Forty-three children, along with their mothers, were recruited from five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do, South Korea.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readolescent children's meta-emotion philosophy was influenced by maternal self-directed meta-emotion philosophy. Second, children's meta-emotion philosophy significantly influenced their own social competence.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self-directed meta-emotion philosophy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was mediated by children's meta-emotion philosophy.

*Keywords:* maternal meta-emotion philosophy, child meta-emotion philosophy, social competence, parent-child emotional relationship

